

민원답변서

□ 민원내용

서울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7호선을 타고 오는데 온수가 마지막 역이라며 다 내리라고 하시고 부평구청방향은 7호선을 타라고 단순 방송만 했습니다. 모두 내리고 다시 같은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 우르르 반대 플랫폼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놓치고 10분 기다려서 제대로 탔습니다. 제대로 표시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제대로 안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플랫폼은 파란색 1호선 갈아타는 싸인으로 도배되어있고 심지어 7호선 플랫폼도 파란색 띠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두 플랫폼 사이 기둥은 전제 7호선이라 적혀있는데 어느 플랫폼에서 기다려야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처음 오는 사람도 찾아가라고 만드는게 안내판인거 아닌가요? 심지어 널린게 TV인데 컴퓨터로 안내글 하나 올리는데 어려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7호선 부평구청을 가시다가 부득이하게 온수행 열차를 타고 온수역에서 부평구청행 열차를 갈아타시는 경우 내린 승강장에서 기다리셨다가 부평구청행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온수역 승강장에는 7호선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철 이용 승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장조사후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